

인터넷 사용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이 선 주 김 귀 애 홍 창 희[†]
 김원목기념 봉생병원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총 43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 인터넷 사용 유형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 및 인터넷 사용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변인들에서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연구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위험집단에서는 대인관계 유형과 온라인 게임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에서는 온라인 게임 유형의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에서는 대인관계 유형과 정보검색 유형이 많았다. t-test 결과에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극추구 동기, 숙달 동기, 성적 동기가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상호작용 동기, 정보 동기, 표현 동기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 결과, 남학생에서는 성적 동기, 숙달 동기, 도피 동기, 회피적 대처 순으로, 여학생에서는 자극추구 동기, 상호작용 동기, 숙달 동기, 도피 동기, 회피적 대처 순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위험 집단에서는 성적 동기, 회피적 대처, 정보 동기, 상호작용 동기, 자극 추구 동기 순으로, 일반 집단에서는 자극 추구 동기, 표현 동기, 숙달 동기, 정보 동기, 회피적 대처 순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유형과 더불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성별의 따른 차이가 시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병리적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동기,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인터넷 사용 유형, 성차

[†] 교신저자 : 홍창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Tel : 051-510-2144, E-mail : hch2144@yahoo.co.kr

요즘 청소년을 디지털 세대 또는 디지털 키드(Digital Kid)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한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어 또 다른 현실로 기능하는 삶의 공간이 되었다.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자주 사용함에 따라 과도한 인터넷 몰입으로 인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업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시사저널. 2010년 11월 24일)은 우리 사회에 과도한 인터넷 몰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지를 일깨워준다.

Morahan-Martin과 Schumacher(2000)는 부정적인 인터넷 사용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PIU)’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병리적 인터넷 사용이란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 인해 학업, 직업,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초래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기분전환적인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에 대한 갈망, 죄책감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이 지속되면 온라인 생활이 현실 생활로부터 분리되고, 인터넷의 나쁜 기능들이 좋은 기능들을 압도해 버리게 된다(Suler, 1999).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09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2.8%(938만명)로 성인의 6.4%(975만명)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최두진, 공여

삼, 엄나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0). 청소년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수 많은 국내 연구 중에서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6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변인은 자기효능감(윤지영, 2001), 친구관계(서미아, 2007; 서주현, 유안진, 2001), 외로움, 우울(김종범, 한종철, 2001; Morahan-Martin & Schumacher, 2003), 사회적 지지(김병석, 정은희, 2004, Leung, 2003) 등으로 특히 인터넷 사용동기(곽웅신, 이영호, 2008; 성윤숙, 2003; 허정선, 2009)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우연, 2003; 이해경, 2002)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인터넷 사용동기는 인터넷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영역이나 형태뿐 아니라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정도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곽웅신, 이영호, 2008). 특히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인터넷 상에서 충족되게 될 때, 인터넷은 현실을 대체하게 되며 그 자체로 생활이 되어버린다(Suler, 1998). 인터넷 사용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인관계 동기, 숙달 동기, 자극추구 동기, 정보 동기, 현실회피 동기, 성적 동기가 비교적 공통적인 인터넷 사용동기로 확인되었다(곽웅신, 이영호, 2008; 천명재, 2004; Leung, 2007; Miller, 1998; Papacharissi & Rubin, 2000; Suler, 1999). 대인관계 동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자하는 동기를 말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채팅, 온라인 게임, 다중사용자영역(multi user domain, MUD: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문자 기반 가상세계)과 같은 양방향적인 서비스가 가장 과도한 몰입을 이끄는 것으로 시사되었다(서승연, 이영호, 2007; Chou & Hsial, 2000; Leung, 2003; Martin & Schumacker, 2000; Scherer, 1997; Young, 1996; Whang, Lee, & Chang, 2003). 숙달 동기는 인터넷 활동을 통해서 학습, 성취, 숙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동기이다. 인간은 모두 학습하고 성취하고 환경을 숙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Suler, 1996, 1999). 하지만 이것이 현실의 실패, 부족감을 상쇄하려고 하거나 성취 욕구가 지나칠 경우에는 과도한 몰입을 이끌게 된다. 자극추구 동기는 인터넷의 비현실적이고 새로운 활동을 해서 자극이나 감각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병리적 인터넷 사용자들은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서 자극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Lin, 2001). 현실회피 동기는 현실에서 벗어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천명재, 2004)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이다(곽웅신, 이영호, 2008). 가상공간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현실의 문제를 잊을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도 완화시키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성적 동기는 인터넷을 통해 성과 관련된 자극을 찾아 성적 각성을 얻으려는 동기이다(곽웅신, 이영호, 2008). 인터넷에서는 야한 동영상, 사진 등의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점들 때문에 청소년들은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게 된다. 정보 동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

는 동기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감, 지식 확장감, 유능감과 성취감, 새로운 정보의 창조감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할 수 있다(성영신, 박은아, 이 성수, 1999). 표현 동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느낌, 가치 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이 동기는 곽웅신과 이영호(2008)의 연구에서 새로 연구된 동기이다. 청소년기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등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동기에서 표현 동기가 중요한 동기라 생각된다.

한편, 만성적이고 높은 스트레스는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는 대상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Leventhal & Cleary, 1980; Marlatt & Gordon, 1985; Perkins, 1999; Russell & Mehrabian, 1975; Shiffman, 1982; Tomkins, 1996).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몰입에 영향을 준다(이성식, 전신현, 2006; 장성화, 박영진, 2001; Gharib, Homayouni, & Yanesari, 2010; Whang, Lee, & Chang, 2003).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잊게 해주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의 일부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병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가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서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이

우연, 2003; 이해경, 2002; Bergebin, Gupta, Derebensky, & Kaufman, 2006; Gupta, Derevensky, & Margot, 2004). 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인터넷 활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고자 한다. 이런 회피적인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인터넷 몰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과 일반 사용자 집단에 따른 인터넷 사용 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시사하는 선행 연구들(황화성, 2008; Frydenberg & Lewis, 1993; Öngen, 2006)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 사용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인터넷 사용동기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주로 게임, 오락과 관련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대인관계 추구하고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문성원, 2009; 서주현, 유안진, 2001; Eric, 2000; Kenney, Wellman, & Klement, 2003).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의 사용에 있어서도 남학생은 재미나 흥미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상대방과의 접촉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황화성, 2008). 즉, 남학생은 게임, 오락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터넷 사용의 중요한 동기이고 여학생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함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인

터넷 사용 동기인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또래와 함께 있는 등의 사회적 지지 추구(Frydenberg & Lewis, 1993; Plancherel & Bolognini, 1995)와 정서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Spirito, Stark, & Williams, 1998). 그리고 남학생보다 문제 해결적이고(Patterson & McCubbin, 1987; Öngen, 2006) 직접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다(Spirito, Stark, & Williams, 1998). 남학생은 유머, 취미(Plancherel & Bolognini, 1995), 오락, 신체활동(Frydenberg & Lewis, 1993)처럼 스트레스 감소 활동이나 기분전환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인터넷 사용동기 및 목적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변인들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특정 변인과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이 변인들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된 인터넷 사용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사용 유형과 인터넷 사용 동기,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성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 변인들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방 법

측정도구

연구대상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설문지를 통해 얻어졌다.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 중 남학생은 225명(52.2%), 여학생은 206명(47.8%)이었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척도)의 간략형 척도(KS척도)의 분류기준(표 1)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고위험 사용자집단, 잠재적 위험 사용자집단, 일반 사용자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고위험 사용자집단은 17명(3.9%), 잠재적 위험 사용자집단은 69명(16.0%), 일반 사용자집단은 345명(80.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이 과거보다 더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잠재적으로 인터넷을 병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 또한 중요함에 비추어 고위험 사용자집단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집단을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위험집단으로 함께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간략형 척도(KS척도)

청소년들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에서 개발한 척도로 일상생활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빈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KS척도의 분류기준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 집단, 잠재적 위험 사용자 집단, 일반 사용자 집단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alpha는 .91이었다.

인터넷 동기척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곽용신과 이영호(2008)가 개발한 척도이다. 자극추구 동기, 숙달 동기, 상호작용 동기, 정보 동기, 집착 동기, 도피 동기, 표현 동기, 성적 동기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집착 동기를 제외한 7개 하위요인, 4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표 1.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간략형 척도(KS척도)의 분류기준

집단	기준
고위험 사용자집단	원점수 총점 52점 초과 또는 일상생활장애 16점 초과 AND 금단 10점 초과 AND 내성 12점 초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집단	원점수 총점 47점 초과 OR 일상생활장애 14점 초과 OR 금단 9점 초과 OR 내성 11점 초과
일반 사용자집단	위의 집단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47점에서 18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alpha는 자극추구 동기 .85, 숙달 동기 .93, 상호작용 동기 .85, 정보 동기 .76, 도피 동기 .76, 표현 동기 .84, 성적 동기 .72이었다.

스트레스 대처 척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교현과 전경구(1993)가 개발한 중학생용 대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 추구, 긍정적 비교, 외적 감정 발산, 내적 감정 억제, 내적 감정 발산, 거리두기, 체념·철수의 총 8개의 하위 척도가 포함된다. 총 45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은 1점(전혀 사용하지 않음)에서 4점(많이 사용)까지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의 사용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검증함으로써 대처 척도의 요인구조와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고유의 목적은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인(common factor)을 추출하는 것이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이 아닌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에서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사각회전(Turker & MacCallum, 1997) 중에서 Oblimin(Delta=0)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분석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은 모두 9개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11.05, 2.93, 2.50, 1.76, 1.58, 1.3, 1.27, 1.20, 1.13. 스크리 도표를 살펴보면, 5요인 이후에 요인간 고유치의 차이가

줄어들고 완만한 기울기를 보여, 요인 수를 5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요인 수를 5개로 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앞서와 같이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Oblimin(Delta=0)방법으로 회전하였다.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3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되기 때문에(홍세희, 2008)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30이상인 문항만 척도에 포함시켰다. 두 개 이상의 요인에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지거나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이하인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32개 문항, 5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 자체를 생각하려하지 않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회피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극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하거나 정서적 위안을 얻으려는 행동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지원 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혹은 감정을 풀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격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상황을 재해석하여 받아들이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해석과 수용'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척도들의 Cronbach alpha는 회피적 대처 .81, 적극적 대처 .80, 사회적 지원 추구 .75, 재해석과 수용 .75이었다.

인터넷 사용 유형에 관한 질문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 유

표 2. 인터넷 사용유형의 하위 서비스

인터넷 사용유형	하위 서비스
대인관계 유형	· 이메일 · 메신저/채팅 · 미니홈피/블로그 · 친목을 위한 클럽/카페 활동 · 게시판 읽기/쓰기/리플달기
정보검색 유형	· 정보/지식/자료 검색 · 뉴스보기 · 과제하기 · 자료 다운받기 · 정보획득을 위한 클럽/카페 활동
온라인 게임 유형	· 혼자 하는 게임 · 오프라인 친구들과 하는 게임 · 온라인 친구들과 하는 게임
기타 유형	· 그 외의 서비스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쇼핑, 영화/드라마/음악/애니메이션/야한 동영상 보기 등의 응답을 하였다.)

형을 알아보기 위해 주이용 서비스에 따라 대인관계 유형, 정보검색 유형, 온라인 게임 유형,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각 인터넷 사용유형의 하위 서비스들의 사용시간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을 측정하였다(서주현, 유안진, 2001; 이혜경, 2010).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영역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사용 유형을 나누었고 두 개 이상의 영역에서 사용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인터넷 사용유형의 하위 서비스들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

결과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5.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 및 인터넷 사용 유형을 빈도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동기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얼마나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간략형)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별 및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따른 인터넷 사용 유형 분포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 및 성별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 사용 유형을 분류해보았다(표 3). 우선, 성별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남학생에서는 대인관계 유형 38명(16.9%), 정보검색 유형 43명(19.1%), 온라인 게임 유형

표 3.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따른 인터넷 사용 유형 분포

		인터넷 사용 유형				전체	χ^2
		대인관계 유형	정보검색 유형	온라인 게임 유형	기타 유형		
성별	남학생	38(16.9)	43(19.1)	137(60.9)	7(3.1)	225(100)	95.78***
	여학생	87(42.2)	71(34.5)	31(15.0)	17(8.3)	206(100)	
병리적 인터넷 사용	위험 집단	35(40.7)	7(8.1)	39(45.3)	5(5.8)	86(100)	20.02***
	일반 집단	90(26.1)	107(31.0)	129(37.4)	19(5.5)	345(100)	
전체		125(29.0)	114(26.5)	168(39.0)	24(5.6)	431(100)	

*** $p < .001$

137명(60.9%), 기타 유형 7명(3.1%)으로 온라인 게임 유형이 많았다. 여학생은 대인관계 유형 87명(42.2%), 정보검색 유형 71명(34.5%), 온라인 게임 유형 31명(15.0%), 기타 유형 17명(8.3%)으로 대인관계 유형과 정보검색 유형이 비교적 많았다. 성별에 따른 사용유형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chi^2(3, N = 431) = 95.78, p < .001$. 한편,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따라서도 인터넷 사용 유형의 분포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chi^2(3, N = 431) = 20.02, p < .001$. 위험집단에서는 대인관계 유형이 35명(40.7%), 정보검색 7명(8.1%), 온라인 게임유형 39명(45.3%), 기타유형이 5명(5.8%)으로 대인관계 유형과 온라인게임 유형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집단의 여학생은 대인관계 유형이 25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온라인 게임 유형이 33명(73.3%)로 가장 많았다. 일반집단에서 대인관계유형은 90명(26.1%), 정보검색 유형 107명(31.0%), 온라인 게임 유형 129명(37.4%), 기타 유형 19명(5.5%)으로 기타유형을 제외한 세 유형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사용 동기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인터넷 사용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31) = 2.04, p < .05$. 인터넷 사용동기의 하위요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극추구 동기, $t(431)=5.83, p < .001$, 숙달 동기, $t(431)=8.88, p < .001$, 성적 동기가, $t(431)=3.97, p < .01$, 높았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상호작용 동기, $t(431)=-5.55, p < .001$, 정보 동기, $t(431)=-3.54, p < .001$, 표현 동기가, $t(431)=-2.65, p < .01$, 높았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는, 여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학생보다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431)=-5.62, p < .001$, 모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남자(N=225)	여자(N=206)	t
인터넷 사용동기	65.40(15.69)	62.55(13.30)	2.04*
자극추구 동기	9.89(3.85)	8.03(2.75)	5.83***
숙달 동기	12.29(4.84)	8.47(4.10)	8.88***
상호작용 동기	9.59(3.60)	11.52(3.65)	-5.55***
정보 동기	11.36(3.45)	12.55(3.51)	-3.54***
도피 동기	7.93(2.48)	7.50(2.10)	1.92
표현 동기	8.18(2.69)	8.94(3.18)	-2.65**
성적 동기	6.15(1.95)	5.53(1.20)	3.97**
스트레스 대처방식	49.99(13.15)	56.83(12.03)	-5.62***
회피적 대처	15.68(4.94)	17.88(4.86)	-4.66***
적극적 대처	9.83(3.29)	10.64(3.37)	-2.50*
사회적 지원 추구	8.61(2.60)	11.35(3.61)	-8.98***
공격적 대처	7.48(2.61)	8.03(2.85)	-2.07*
재해석과 수용	8.38(2.78)	8.93(2.92)	-2.00*

* $p < .05$, ** $p < .01$, *** $p < .001$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다회귀분석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종속변인으로,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독립 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학생에서는 성적 동기가 병리적 인터넷을 가장 잘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31.8%의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23) = 105.48, p < .001$. 다음 단계에서 숙달 동기가 추가되었을 때 전체 설명량은 44.1%이었다, $F(2, 222) = 89.27, p < .001$. 다음으로 회피적 대처, 도피 동기 순으로 포함되었고 이 네 변인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총 51.4%를

설명하였다, $F(4, 220) = 60.29, p < .05$. 여학생에서는, 자극추구 동기가 여학생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가장 잘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25.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04) = 69.27, p < .001$. 2단계에서 상호작용 동기 변인이 추가되어 전체 설명량은 38.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회피적 대처, 숙달 동기, 성적 동기 순으로 포함되면서 이 다섯 변인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총 45.7%를 설명하였다, $F(5, 200) = 35.33, p < .001$.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성적 동기, 숙달 동기, 회피적 대처가 공통적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도피 동기는 남학생에서, 그리고 자극추구 동기와 상호작용 동기는 여학생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따라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험 집단에서는 성적 동기가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

표 5. 성별에 따른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

	단계	예측변인	β	t	R^2	ΔR^2	F
남 학 생	1	성적동기	.57	10.27***	.318		105.48***
	2	성적동기	.43	7.96***	.441	.125	89.27***
		숙달동기	.38	7.07***			
	3	성적동기	.38	7.34***	.506	.067	77.50***
		숙달동기	.35	6.86***			
		회피적 대처	.27	5.51***			
	4	성적동기	.30	4.78***	.514	.01	60.29*
		숙달동기	.33	6.52***			
회피적 대처		.24	4.81***				
도피동기		.14	2.17***				
여 학 생	1	자극추구동기	.50	8.32***	.251		69.27***
	2	자극추구동기	.42	7.50***	.388	.140	65.66***
		상호작용동기	.38	6.82***			
	3	자극추구동기	.39	7.02***	.426	.041	51.54***
		상호작용동기	.34	6.14***			
		회피적 대처	.21	3.81***			
	4	자극추구동기	.29	4.42***	.445	.021	41.93***
		상호작용동기	.35	6.38***			
		회피적 대처	.20	3.56***			
		숙달동기	.18	2.80***			
5	자극추구동기	.21	2.82***	.457	.014	35.33***	
	상호작용동기	.33	6.01***				
	회피적 대처	.19	3.58***				
	숙달동기	.18	2.83***				
		성적동기	.15	2.31***			

* $p < .05$, ** $p < .01$, *** $p < .001$

인으로 28.5%를 설명하였다, $F(1, 84) = 33.44$, $p < .001$. 2단계에서 회피적 대처 변인이 추가되어 36.9%를 설명하였으며 이후 정보 동기, 상호작용 동기 변인 순으로 추가되면서 이 다섯 변인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총 45.8%를 설명하였다, $F(5, 80) = 60.29$, $p < .001$. 다음으로 일반 집단의 분석 결과, 자극추구 동기가 가장 큰 설명량을 가진 변인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18.8%를 설명하였다, $F(1, 343) = 79.24$,

$p < .001$. 다음 단계에서 표현 동기 변인이 추가되면서 설명량은 23.6%였으며, $F(2, 342) = 52.64$, $p < .001$, 이후 숙달 동기, 정보 동기, 회피적 대처 변인 순으로 추가되면서 이 다섯 변인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해 갖는 설명량은 총 30.0%이었다, $F(5, 339) = 28.94$, $p < .001$. 위험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에서 자극추구 동기, 정보 동기, 회피적 대처가 공통적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유의한 변인으로

표 6.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따른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

단계	예측변인	β	t	R^2	ΔR^2	F	
위험 집단	1	성적동기	.16	5.78***	.285	33.44***	
	2	성적동기	1.36	4.89***	.369	.084	24.24***
		회피적 대처	.39	3.32**			
	3	성적동기	1.44	5.29***	.408	.039	18.81***
		회피적 대처	.37	3.25**			
		정보동기	-.45	-2.32*			
	4	성적동기	1.37	5.17***	.458	.051	17.13***
		회피적 대처	.42	3.78***			
		정보동기	-.65	-3.26**			
		상호작용동기	.47	2.75**			
	5	성적동기	.99	3.12**	.487	.028	15.16***
		회피적 대처	.41	3.82***			
		정보동기	-.69	-3.50**			
		상호작용동기	.54	3.15**			
		자극추구동기	.37	2.10*			
일반 집단	1	자극추구동기	.77	8.90***	.188	79.24***	
	2	자극추구동기	.62	6.84***	.236	.048	52.64***
		표현동기	.46	4.62***			
	3	자극추구동기	.30	2.58***	.276	.040	43.10***
		표현동기	.53	5.42***			
		숙달동기	.31	4.31***			
	4	자극추구동기	.28	2.40***	.289	.011	34.49***
		표현동기	.46	4.50*			
		숙달동기	.33	4.56***			
		정보동기	.18	2.56*			
	5	자극추구동기	.23	1.88***	.300	.014	28.94***
		표현동기	.43	4.75***			
		숙달동기	.33	4.21***			
		정보동기	.14	2.45*			
		회피적 대처	.16	2.25*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정보 동기는 위험 집단에서는 부적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예언하였으며 일반 집단에서는 정적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대처는 일반 집단에서 설명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동기, 상호작용 동기는 위험 집단에서, 그리고 표현 동기와 숙달 동기는 일반 집단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상의 연구를 요약해보면, 먼저 전체 연구 대상자 431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순수하게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속하는 대상자는 전체의 약 3.9%였다. 이는 병적 도박과 같이 충동 조절과 관련된 장애의 유병률인 1~3%의 수준과 비슷한 양상이다(서승연, 이영호, 2007). 성별과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따라 인터넷 사용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위험집단에서는 대인관계 유형과 온라인 게임 유형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런 결과는 채팅, 게임과 같은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서비스가 가장 과도한 몰입을 이끈다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서승연, 이영호, 2007; Chou & Hsial, 2000; Leung, 2003; Martin & Schumacker, 2000; Scherer, 1997; Young, 1996; Whang, Lee, & Chang, 2003). 인터넷 속에서는 실제 자신의 어떤 측면을 숨기거나 혹은 원하는 어떤 모습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된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자아를 형성한다(Turkle, 1995). 또한 인터넷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활동들이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은 더욱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 집단에서는 온라인 게임 유형의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에서는 대인관계 유형과 정보검색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남학생은 온라인 게임, 여학생은 대인관계 추구하고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Eric, 2000; Kenney, Wellman, & Klement, 2003; 문성

원, 2009; 서주현, 유안진, 2001).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인터넷 사용동기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극추구 동기, 숙달 동기, 성적 동기가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상호작용 동기, 정보 동기, 표현 동기가 더 높았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동기의 차이는 인터넷 사용유형에서의 차이와 연관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남학생에서는 온라인 게임 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자극추구 동기와 숙달 동기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온라인 게임인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창의적인 도구들로 게임을 즐기면서, 자신을 반영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스틸 넘치는 모험을 하는 등, 자극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캐릭터를 통해 레벨이 상승하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가상 공간에서 자신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학생에서는 대인관계 유형과 정보검색 유형이 많았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가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대인관계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인관계 동기와 표현 동기가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정보 동기는 자료를 찾거나 정보검색 활동을 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남학생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권민주, 2008)와 유사한 결과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회피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라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나 변인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라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에서는 성적 동기가 병리적 인터넷을 가장 잘 예측해줄 수 있는 변인으로 그 설명량은 약 32%였으며 이후 숙달 동기, 도피 동기, 회피적 대처 순으로 추가되어 이 네 변인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51.4%이었다. 여학생에서는 자극추구 동기가 약 25%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 상호작용 동기, 회피적 대처, 숙달 동기, 성적 동기 변인이 추가되면서 이 다섯 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45.7%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성적 동기, 숙달 동기, 회피적 대처가 공통적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현실에서 도피하여 인터넷 상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할 때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광웅신과 이영호(2008)의 연구에서 성적 동기, 자극 추구 동기, 숙달 동기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이 세 동기가 경험 동기라는 상위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동기란 인터넷으로 자극을 얻거나 인터넷을 경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동

기를 말한다. 현 결과에서도, 경험 동기 중 성적 동기와 숙달 동기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는 활동을 즐기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즐거움을 얻는 것이 과도하게 인터넷에 몰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에서는 도피 동기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수록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학생에서는 상호작용 동기와 자극추구 동기가 유의한 변인으로 포함되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각과 자극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자 할수록 여학생들이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따라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 집단에서는 성적 동기가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었으며 그 설명량은 28.5%였다. 이후에 회피적 대처, 정보 동기, 상호작용 동기, 자극추구 동기가 추가되면서 이 다섯 변인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갖는 설명량은 48.7%였다. 일반 집단에서는 자극추구 동기가 가장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18.8%의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동기, 숙달 동기, 정보 동기, 회피적 대처 순으로 회귀모형에 포함되면서 이 다섯 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30.0%였다. 종합해보면, 위험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에서 자극추구 동기, 정보 동기, 회피적 대처가 공통적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극과 감각을 추구하고자 할수록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보 동기는 일반 집단에서는 정적으로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위험 집단에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을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수록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회피적 대처는 일반 집단보다 위험 집단에서 보다 큰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험 집단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실과는 다르게 사이버공간에서는 즉시적인 만족이 가능하고 좌절보다는 즐거움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회피적 대처로서의 인터넷 사용은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이런 회피적 대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고(Öngen, 2006) 긍정적 적응보다는 부정적 적응과 더 관련된(Herman-Stahl, Stemmler, & Perterson, 1995; 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역기능적인 대처방식으로, 잠재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Young, 2009) 이는 다시 인터넷 사용을 이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터넷 활동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하거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이 되고 점차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Song, Larose, Eastin, & Lin, 2004)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회피적 대처가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

트레스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소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 유형, 인터넷 사용 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인터넷 사용 동기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및 병리적 사용 집단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성별과 병리적 사용 집단에 따라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성별을 나누지 않고 함께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문항에 대해서 왜곡하여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보다 실제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인터넷 사용 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두 변인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대인관계 기술, 충동 조절 능력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살펴본다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터넷 사용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변인들이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추후 이런 연구들이 확장된다면 청소년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곽용신, 이영호 (2008). 인터넷동기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91-310.
- 권민주 (2008).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 전검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12(2), 197-217.
- 김병석, 정은희 (2004). 인터넷 채팅중독 청소년의 공격성, 사회적 지지 지각, 인지적 대인문제 해결능력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2(1), 91-99.
- 김중범, 한종철 (200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성원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있어서의 성차 그리고 병리적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47-65.
-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12(2), 3-14.
- 서미아 (1007). 일개 중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또래 애착 정도, 학교생활 대처와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6(1), 5-13.
- 서승연, 이영호 (2007).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391-405.
- 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성영신, 박은아, 이성수 (1999). 컴퓨터 사용의 심리적 욕구와 충족과정. 사이버 공간의 심리. 박영사.
- 성윤숙 (2003).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몰입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1(1), 96-115.
- 시사저널 (2010년 11월 24일). '핏줄'마저 마비시키는 게임중독. www.sisapress.com.
- 윤지영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우연 (2003). 인터넷 중독, 비중독 집단간의 자존감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차이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 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55-79.
- 이혜경 (2010). 병리적 인터넷 사용 하위유형과 성격특성.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화, 박영진 (2010).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15(2), 195-226.
- 천명재 (2004). 인터넷 이용동기 프로파일에 의한 인터넷 중독자 분류 연구. 서울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최두진, 공여삼, 엄나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고도화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허정선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와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8). 구조방정식 모형: 초급, 중급,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4, 한국국제경영학회 워크샵 자료집. 한국국제경영학회.
- 황하성 (2008).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5(2), 177-197.
- Bergebin, T., Gupta, R., Derebrensky, J., & Kaufman, F. (2006). Adolescent gambling: Understanding the role of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2, 195-208.
- Chou, C., & HSiao, M. C. (2000). Internet addiction, usage, gratification, and pleasure experience: The Taiwan college student's case. *Computers and Education*, 35(1), 65-80.
- Eric, B. W. (2000). Gender differences in Internet use patterns and Internet application preferences: A two-sample comparison. *CyberPsychology & Behavior*, 3(2), 167-178.
- Frydenberg, E., & Lewis, R. (1993). Boys play sport and girls turn to others: age, gender and ethnicity as determinants of coping. *Journal of Adolescence*, 16, 253-266.
- Gharib, K., Homayouni, A., & Yanesari, M. K. (2010). High levels of stress and addiction to Internet. *European Psychiatry*, 25, supplement1, 739.
- Gupta, R., Derevensky, J., & Marget, N. (2004). Coping strategies employed by adolescents with Gambling problem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9(3), 115-120.
- Herman-Stahl, M. A., Stemmler, M., & Petersen, A. C. (1995). Approach and avoidant coping: Implications for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649-665.
- Kenney, T., Wellman, B., & Klement, T. (2003). Gendering the digital divide. *IT & Society*, 1(5), 72-96.
- Leung, L. (2003). Impacts of Net-generation attributes, seductive properties of the Internet, and gratifications-obtained on Internet use. *Telematics and Informatics*, 20, 107-129.
- Leung, L. (2007). Stressful Life Events, Motives for Internet Use, and Social Support Among Digital Kid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2), 204-214.
- Leventhal, H., & Cleary, P. D. (1980). The smoking problem: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theory in behavioral risk modification. *Psychological Bulletin*, 88, 370-405.
- Lin, S. J. (2001). *Classifying Internet pathological users: Their usage, Internet sensation seeking, and perception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9th, San Francisco, CA. 1-28.
- Marlatt, G. A., & Gordon, J. R. (1985). *Relapse prevention: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addictive behaviors*. Guilford Press, New York.
- Miller, T. E. (1996). Segmenting the Internet. *American Demographics*, 18, 48-52.

- Morahan-Martin, J. (2003).
- Morahan-Martin, J., & Schumacher, P. (2000).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6, 13-29.
- Öngen, D.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among Turkish adolesc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4(2), 181-196.
- Papacharissi, Z., & Rubin, A. M. (2000).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175-196.
- Patterson, J. M., & McCubbin, H. I. (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 163-186.
- Perkins, W. H. (1999). Stress-related drinking in collegiate and postcollegiate young adulthood? Life course and gender patter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219-227.
- Plancherel, B., & Bolognini, M. (1995). Coping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8, 459-474.
- Russell, J. A., & Mehrabian, A. (1975).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s in alcohol 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6, 1508-1536.
- Scherer, K. (1997). College life on-line: healthy and unhealthy Internet us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 655-664.
- Seiffge-Krenke, I., & Klessinger, N. (2000). Long-term effects of avoidant coping on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617-630.
- Shiffman, S. (1982). Relapse following smoking cessation: a situational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71-86.
- Song, I., Larose, R., Eastin, M. S., & Lin, C. A. (2004). Internet Gratifications and Internet addiction: On the use and abuses of new media. *CyberPsychology & Behavior*, 7(4), 384-394.
- Spirito, A., Stark, L. J., & Williams, C. A. (1988). Development of a brief coping checklist for use with pediatric population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3, 555-574.
- Suler, J. (1996). Why is This Thing Eating My Life?: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at the "palace". <http://www.rider.edu/~suler/psyber/eatlife.html>.
- Suler, J. (1998).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www.rider.edu/~suler/psyber/cybaddiction.html.
- Suler, J. (1999) To get What You Need: Healthy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http://www.rider.edu/~suler/psyber/getneed.html>
- Turker, L. R., & MacCallum, R. C. (199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npublished manuscript.*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Turkle, S.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최유식 역. (2003). *스트린 위의 삶. 인터넷과 컴퓨터 시대의 인간. 믿음사.*
- Whang, L., Lee, S., & Chang, G. (2003). Internet overuser's psychological profiles: a behavior sampling analysis on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6(2), 143-150.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1, 237-244.
- Young, K. S. (2009). Internet Addiction: Diagnosis

and Treatment Considerations. *J Contemp
Psychother*, 39, 241-246.

1 차원고접수 : 2011. 5. 7.

심사통과접수 : 2011. 9. 19.

최종원고접수 : 2011. 9. 22.

The Effects of Internet Use Motivation and Stress Coping on Adolescent's Pathological Internet Use: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Seon-Ju Lee

Gui-Ae Kim

Chang-Hee Hong

BongSeng Memorial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internet use motivation and stress coping on adolescent's pathological internet use. 228 middle school and 203 high school students were participated and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and on-line games frequently appeared in pathological internet use risk group. On-line game is strongest in boys and community and information-search is strongest in girls.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net use motivation and stress coping has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Boys have a higher sensation seeking motivation, mastery motivation, sexual motivation than girls. And Girls have a higher interaction motivation, information motivation, expression motivation than boys. In both boys and girls, avoidant coping was highest among the stress copings. Thir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4 variables(sexual motivation, mastery motivation, avoidant motivation, avoidant coping) explained 51.4% varianc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in boys. In girls, 5 variables(sensation seeking motivation, interaction motivation, mastery motivation, avoidant motivation, avoidant coping) explained 47.5% varianc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athological Internet Use, Internet Use Motivation, Stress Coping, Internet Use Type, Gender difference*

부록 1. 스트레스 대처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4	5
요인 1. 회피적 대처					
1. 혼란되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다.	.74				
2. 나의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의 뜻대로 따른다.	.53				
3.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51				
4.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50				
5. 속으로만 삭인다.	.47				
6. 나의 감정을 가능한 억제한다.	.47				
7.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46				
8.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한다.	.44				
9. 문제를 줄이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한다.	.37				
10. 이 일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30				
요인 2. 적극적 대처					
1.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62			
2.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운다.		-.61			
3.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		-.61			
4. 이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비를 한다.		-.48			
5.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48			
6.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4			
요인 3. 사회적 지원 추구					
1. 걱정거리를 친구나 가족에게 고백하고 위로를 구한다.			-.71		
2. 감정을 풀려고 운다.			-.70		
3. 가족 중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68		
4.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과 이해를 구한다.			-.51		
5. 친구나 가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43		
6. 나의 하소연을 들어 줄 사람을 찾는다.			-.42		
요인 4. 공격적 대처					
1.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상대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				-.58	
2. 감정을 풀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				-.57	
3. 앞으로 보복을 다짐한다.				-.51	
4.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있는 상대에게 따진다.				-.50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한다.				-.43	
요인 5. 재해석과 수용					
1.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한다.					-.78
2. 더 작은 것에 만족하려 한다.					-.68
3. 나보다 못한 주위 사람을 생각한다.					-.43
4. 나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과 비교한다.					-.32
5. 운으로 돌린다.					-.31
내적 합치도(Cronbach α)	.81	.80	.79	.75	.75
고유치(eigenvalue)	8.31	2.50	2.04	1.65	1.33
설명변량(%)	25.98	7.80	6.38	5.15	4.14
전체설명변량(%)			49.45		